



LG CNS, 인니 국세청 '코어택스' 구축 감사패

LG CNS가 국외 세무 행정 시스템의 디지털 전환 공로를 인정 받았다. LG CNS는 인도네시아 국세청으로부터 조세 행정시스템 '코어택스' 구축 감사패를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11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국세청에서 열린 감사패 전달식에서 LG CNS 디지털비즈니스사업부장 김홍근 부사장(왼쪽)과 이완 드주니아르디 재무부장관 특별보좌관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LG CNS



대우건설, 노사합동 가족사랑 페스티벌 개최

대우건설은 지난 12일 경기 연천 전곡리 유적과 한탄강관광지 일원에서 '2026 노사합동 가족사랑 페스티벌'을 연천군과 공동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임직원과 가족 2000여 명이 참여한 이번 행사는 지난 6월 노동조합이 전사 규모의 가족행사를 제안하고 회사가 이에 동참하면서 마련됐다. /대우건설



유한양행, 창립 100주년 온라인 역사관 개관

국민 건강을 지켜온 대한민국 대표 제약 기업 유한양행이 창립 100주년을 맞아 지난 1세기의 발자취와 창업 정신을 소개하는 디지털 공간을 마련했다. 유한양행은 '유한양행 100주년 기념 온라인 역사관'을 공식 개관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온라인 역사관은 유한양행이 최근 편찬한 '유한양행 100년사' 통사를 바탕으로 구축됐다. /유한양행



태광그룹 실, 세화미술관 바젤리츠 전시 후원

명화 관람이 주는 감성적 여운을 일상 속 뷰티로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이색 브랜드 경험이 펼쳐진다. 태광그룹의 뷰티 코스메틱 법인 실이 오는 27일까지 세화미술관에서 열리는 '게오르크 바젤리츠' 전시회를 후원한다고 14일 밝혔다. 게오르크 바젤리츠는 독일 신표현주의를 대표하는 거장으로 알려졌다. 세화미술관 '게오르크 바젤리츠' 전시회 전경. /태광그룹



롯데웰푸드, 구강암 환자 돕는 '스마일 RUN' 후원

롯데웰푸드가 구강암·얼굴기형 환자를 지원하는 '스마일 RUN 페스티벌'을 후원하고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무료 구강검진을 진행했다. 롯데웰푸드는 전날 서울 마포구 평화의공원 평화광장에서 열린 '2026 스마일 RUN 페스티벌'에 자일리톨 껌 등 제품 1만3600여개를 지원했다고 14일 밝혔다. /롯데웰푸드

현대차 정몽구 재단, 세대 잇는 클래식 앙상블 성료

'2026 CMK 실내악 시리즈' 선배 장학생-교수진 함께 무대에 올라

현대차 정몽구 재단의 클래식 음악 장학생과 지도교수진이 세대를 아우르는 앙상블 무대를 선보였다.

현대차 정몽구 재단은 10일과 13일 서울 예술의전당 IBK기업은행챔버홀에서 '2026 CMK 실내악 시리즈'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공연은 클래식 인재 성장 지원 프로그램인 'CMK 영아츠'의 하나로 마련됐다.

10일 첫 공연에서는 목관과 금관, 성악 무대를 선보였다. 목관 앙상블로 그리그의 '페르콘트 모음곡 1번' 중 '아침 기분'을 연주하고, 금관 오중주와 슈만의 '여인의 사랑과 생애'를 음악극으로 재구성한 성악 공연을 진행했다.



지난 13일 열린 2026 CMK 실내악 시리즈 현악 무대 모습.

13일 공연은 피아노와 현악 앙상블로 구성했다. 두 대의 피아노를 연주자 4명이 함께 연주하도록 편곡한 '페르콘트 모음곡 1번'을 비롯해 피아노와 현악기가 어우러진 무대를 선보였다. 공연은 현악기 23대로 연주한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메타모르포젠'으로 마무리했다.

장학생과 교수진은 공연에 앞서 지난달 21일부터 25일까지 강원 평창 알펜시아에서 열린 4박5일 일정의 'CMK 앙상블 음악캠프'에 참여했다. 중학

생부터 대학생까지 다양한 연령의 장학생들이 집중 연습과 워크숍,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협업과 소통을 경험했다.

/이승혁 기자
sh95@metroseoul.co.kr



metro

SK AX, AI인재 양성 '장관상' 수상

AI 역량 인증 분야서 최초 사례

SK AX가 개발한 인공지능(AI) 역량 인증 체계가 정부로부터 AI 인재 양성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SK AX는 고용노동부 주관 '기업자격 정부인정제도 운영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

기업자격 정부인정제도는 기업이 근로자의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해 운영하는 우수 자격 체계를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SK AX는 AI 부트캠프와 AI 리터러시 과정을 각각 생성형 AI 활용 1·2급 자격으로 인정받았다. AI 역량 인증 분야에서는 최초 사례다. 회사 측은 생성형 AI 역량 인증 프로그램이 갖춘 평가의 전문성과 실효성이 국가로부터 공식 인정받은 결과라고 설명했다. 특히 구성원들의 업무 생산성을 높이고 기업 경쟁력을 향상시킨 'AI 증강' 사례로 높이 평가 받았다.

2급 자격인 'AI 리터러시'는 직군에 상관없이 모든 구성원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AI 소양 확보가 목표다. 문서 작성과 데이터 구조화, 스프레드시트 활용, 기초 프로그래밍 등 일상 업무



11일 코엑스마곡에서 열린 '2026년 기업자격 정부인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오른쪽부터)SK AX 김민환 HRX추진담당, 한국산업인력공단 천학기 능력평가이사, SK AX 정대령 AX교육사업1팀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무에 필요한 생성형 AI 활용 역량을 키우고 진단하는 데 활용된다.

1급 'AI 부트캠프'는 AI 전문 인재 육성 과정이다. 사내 데이터와 연동해 AI가 스스로 업무를 수행하는 '맞춤형 AI 에이전트'를 구축하는 등 산업 현장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AI 전문가를 양성한다.

두 인증 모두 최신 AI 모델이 탑재돼 진단부터 구성원별 맞춤 피드백까지 자동으로 제공된다. 또한 지난 1월 시행된 AI 기본법의 안전성·신뢰성·투명성 원칙을 반영해 시험 문항 출제와 평가 과정에서 편향을 최소화해 사람이 최종 결과를 검토·관리하도록 했다. /조민선 기자 msjo@

오뚜기, 함태호 창업정신 이어간다

함태호 명예회장 서거 10주기

오뚜기가 창업자인 함태호 명예회장(사진) 서거 10주기를 맞아 추모식을 열고 그의 경영철학과 사회공헌 정신을 되돌아봤다.

오뚜기는 지난 11일 경기도 안양시 함태호홀에서 함태호 명예회장 서거 10주기 추모식을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함 명예회장의 삶과 국내 식품산업 발전에 기여한 발자취를 돌아보고 품질제일주의와 식생활 향상, 나눔 등 창업정신을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다.



함 명예회장은 1969년 오뚜기의 전신인 품림상사를 설립하고 같은 해 오뚜기 카레를 시작으로 스프, 케첩, 마요

네스·식초 등을 선보였다. 이후 '오뚜기 3분 카레' 등 즉석식품을 통해 국내 식품산업과 식문화 변화에 대응했다. 특히 '내 가족이 먹는 음식'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며 품질을 경영의 핵심 가치로 삼았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우리금융, 조손가정에 추석 선물 전달

7000가구에 행복꾸러미 나눠

우리금융그룹이 추석 명절을 맞아 임직원 참여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우리금융그룹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전국 저소득 조손가정 7000가구에 전달하기 위한 '우리금융 행복꾸러미 제작 임직원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달 초 서울 화현동 우리은행 본점에서 열린 봉사활동에는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을 비롯한 그룹 임직원들이 참여했다. 임직원들은 조부모와 손자녀가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전국 조손가정에 전달할 행복꾸러미를 직접 포장했다.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가운데)과 임직원들이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우리금융

이번 봉사활동에는 올해 7월 본점으로 전입한 직원들이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본점에서 새롭게 근무를 시작한 직원들은 행복꾸러미 포장과 배송 준비에 직접 참여하며 이웃을 위한 나눔에 힘을 보탰다. /안승진 기자 asj1231@

기보, 호우피해 中소 보증사고 유예

'사고특례조치' 시행

기술보증기금이 특별재난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 사고특례조치'를 시행한다.

14일 기보에 따르면 이번 특례조치는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인해 부

실기업 처리되는 것을 막고 안정적인 사업 재개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적용 대상은 경북 안동시(임직면, 남선면, 임하면)·의성군(단촌면), 경남 거제시·통영시 등 행정안전부가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지역에 사업장이 소재한 중소기업 중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등을 통해 피해 사실이 확인된 기업이다. /김승호 기자 bada@